

지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구도 설정

권정화*

Creating the Frame for the Future of Geography Education in Korea

Jung-Hwa Kwon*

요약 : 지리교육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 사회의 근대 국민 교육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나 최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고에서는 당면한 지리교육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변화의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최근 논의되는 지식의 성격 변화에 부응하여 청소년 문화를 배려한 정서 중심의 지리교육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정서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학, 주택정의론, 지역학 등의 과목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지식의 성격 변화, 정서 중심의 지리교육, 국민정서

Abstract : The geography education in Korea has contributed to citizenship education since the late 19th century. But today geography has seen crisis in the school curriculum. In order to overcome this crisis we investigate educational implication of social change. Based on M. Poster's theory of mode of information, we examine changing nature of knowledge and its implication on school. These aspects reflect teenager culture and emotional aspect of geography education. However we needs support from the national ethos. We suggest a few directions of geography education, contribution of cultural landscape to Korean identity, housing and land justice, future cities, geopolitics and culture area.
Key Words : changing nature of knowledge, emotional geography education, national ethos

1. 서론

올해는 IGU 서울 대회를 개최한 지 10주년 되는 해로서 그동안 한국의 지리학계와 지리교육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왔지만, 현재 우리 지리교육계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100여 년 전 국가주의 및 계몽주의 교육사조의 영향 하에서 근대 지리교육이 도입되었다. 당시 지리교육은 국학으로서 국토의식을 함양하고, 발전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주의 교육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전통

적 자연관의 극복, 해외 실정에 대한 계몽, 화이관의 타파를 통하여 계몽주의적 교육 목적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Nam, 1999, 11). 당시 헐버트(Hulbert)가 저술한 지리서 '사민필지'는 최초의 근대 교과서이면서도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교과서라는 점에서 한국 교육사의 한 획을 그은 업적이다. 이러한 교육 전통에도 불구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리교육은 그 정당한 역할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당면한 지리교육의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교육 계로부터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하는 데에서 비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wondaam@knue.ac.kr

못된 것이지만, 근원적으로는 국민정서의 지지를 받지 못 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결국은 교육학계로부터 교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도 국민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리교육은 분명 지리학과와는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 지리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교육은 대학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차원과 직접 연계되며, 넓게 보아 대학 수준의 지리 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지식은 학창 시절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이므로 평생교육에서 지리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며, 현직 교사의 재교육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에 속한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서 지리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은 지리의 저변 확대, 지리적 지식의 대중적 확산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즉 고등교육의 차원, 평생교육의 차원, 교사교육의 차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

지난 20여년 전부터 교육학계의 '평생교육론' 과 경제학계의 '과잉교육론' 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야 현재 진행되는 교육개혁 논의 속에서 지리교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담론 구도 위에서 지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지금이야말로 사회 변화의 현실을 보다 더 냉철히 파악해야 할 시점이며,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필자는 우리 사회의 지리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사회 변화에 대한 담론과 교육의 과제¹⁾

1) 근대 사회의 한계와 정보양식의 도래

지난 세기말부터 21세기 준비 혹은 새 천년에 대한 미래학적 담론들이 유행하면서, 그 한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담론이 우리 사회의 지성 경관을 장식해 왔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논자들마다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근대성에 대한 포스트모던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서구에서 근대성이 본격적으로 정립되었던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윤리적 가치로 여기는 서구 휴머니즘의 출현과 더불어서이었다. 개인이 인식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할 때 그는 권위와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성적 판단에 의거하여 행동하게 되며,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윤리적 가치로서 제시하였고,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사회 조직을 진보의 지향점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인간이란 어떠한 집단에도 속박되지 않은, 바로 주체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말하며, 그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의거해서만 행동하며,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된다. 인간이 존엄한 것은 그가 세계에서 주체라는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이성에 의거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적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합리적인 집단이 민족국가이며, 이는 내재적 질서를 갖추고 있으며 자기 완결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각 국가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민)사회가 있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고 보았다. 즉 사회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가 같은 것으로 보았다(Sung, 1994, 316-319). 국가(공 사회)는 합리적 질서를 지니기에 과학적 탐구를 통해 합법칙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지만, 국제 사회란 무질서하고 우연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지역이란 국가의 일부로서 독자적인 질서와 법칙이 결여되고 상위 조직인 국가에 종속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국가를 이해하면 지역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기에 국가보다 상위 수준인 글로벌(global)한 현상이나 국가의 하위 구성 단위인 로컬(local)한 현상은 경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민족국가의 위상이 동요되고, 민족국가의 성립 요건인 주권의 공간적 분할(영토)이 필연적이라기 보다는 우연적 성격이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지구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이 다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 진보의 이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근대성은 그 효력을 소진하였으므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사회 변화는 주로 의식과 경험 등 문화 영역에서 현저하지만, 그 기저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경제의 성격 변화가 있다. 즉 현대 경제는 주로 서비스에 의존해 있고, 특히 지식과 정보가 경제 성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 문화적 과정에서 생산만큼이나 소비가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문화가 경제 자체에 상당히 침투하여 있다. 즉 심미적 요소를 포함한 상징적 과정이 생산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Park and Kwon, 1998, 97-98)

그러나 근대화는 하나의 동질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은 동시에 위계화, 차별화 과정일 수 밖에 없다. 근대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극소수의 사회가 있고, 그 구현이 아직도 요원한 훨씬 더 많은 사회가 있으며, 후자는 전자를 뒤쫓아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근대화가(비서구의) 서구화로 혹은(일본이나 서구의) 미국화나, 심지어는(동남아 일부 국가의) 한국화로 인식되어 다양한 뒤따르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Kang, 2000, 33).

이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21세기에 접어들어 민족통일과 국토통합이라는 과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할 시점에 왔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큰 특징은 전근대/근대/탈근대라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있다. 세계적인 탈근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근대는 극복의 대상이기 이전에 완성의 대상이다. 근대의 완성과 근대의 극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근대를 완성하려는 노력이 근대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근대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근대를 완성하려는 노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Sim, 2000, 41). 이 과업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단계로서 간주하는 데에서 벗어나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탈현대 사회와 지식의 변화

최근 일련의 사회 변화는 탈산업화론에서 제시하듯이 직업 구조의 일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장자동화가 노동자의 대량 실업을 야기하였듯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한 사무자동화는 화이트칼라 층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직종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예컨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부동산 개발업자, 경영 컨설턴트, 조직 개발 전문가, 시스템 분석가, 제품 디자이너, 마케팅 전략가 등이다(Nam, 1994, 191-192).

라이히(Reich)는 이들을 상징조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확인하며 증개한다는 점에서 상징분석가로서 규정한다. 그들은 복잡한 현실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추상적 이미지로 단순화시키는데, 이 추상적 이미지는 재배열되고 조작 또는 연구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현실로 전환된다. 상징에 대한 조작은 분석적 기법에다 경험이 가미되어 이루어진다. 그 분석기법은 수학적 연산법, 법적 논리, 금융 기법, 과학 법칙, 심리학적 통찰, 연역 및 귀납 체계, 그 밖의 개념적 수수께끼를 푸는 다양한 기법 등이 될 수 있다(Nam, 1994, 192).

상징 조작 중에는 어떻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어떤 상징조작은 새로운 발명을 가져온다. 예컨대 놀라운 기술적 발명, 혁신적인 법률 이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오락물이 필수품이 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새로운 광고 등이다. 어떤 음향, 단어, 그림의 상징 조작은 받아들이는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나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끔 한다(Nam, 1994, 192).

리요타르(Lyotard)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식의 상업화 경향으로 규정한다. 이제 공공연하게든 암묵적이든 교육기관 등이 제기하는 질문은 더 이상 '그것은 진실인가?'가 아니라 '그것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이다. 지식의 상업화라는 맥락에서 이 질문은 '그것은 잘 팔려지는 것인가?'이며, 권력 확장의 맥락에서는 '그것은 효율적인가?'라는 질문과 동일하다. 수행성을 지향하는 기술 분야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조건에서 팔릴 수 있다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Yu, 1992, 132)

리요타르에 따르면, 지식의 습득이 정신 또는 개인의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옛 원리

는 이제 낡은 것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지식 공급자와 사용자가 자신들이 공급 또는 사용하는 지식과 맺는 관계는 이제 상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상품과 맺고 있던 관계의 형식을 따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식은 팔리기 위해 생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식은 새로운 생산에서 가치를 얻기 위해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Yu, 1992, 41).

라이히는 상징 분석가를 교육시키는 데에는 추상화, 체계적 사고, 실험과 협동이라는 네 가지 기본기능이 중요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란 일정한 패턴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현실을 단순화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조직하는 상징분석의 핵심이다. 상징분석가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복잡한 자료를 재해석하고 재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적, 공식, 모델, 구조, 분류, 은유법 등을 사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리되지 않은 방대한 정보들이 통합되고 융합되어 새로운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선택 방안이 드러나게 된다(Nam, 1994, 247-248).

교육의 초점은 정보 전달보다는 판단과 해석에 맞추어진다. 학생들은 자료의 이면을 배운다. 즉 왜 그런 사실이 선택되었는가, 왜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가정되는가, 어떻게 그것들이 추론되었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도록 배우는 것이다. 학생들은 여러 각도에서 현실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과 선택을 생각해내게 된다. 그 결과 의심을 품을 수 있고, 호기심이 많아지며, 창조적인 마음가짐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Nam, 1994, 248-249).

둘째, 체계적 사고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보다도 그 문제가 왜 제기되었고 다른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며, 현실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Nam, 1994, 250).

셋째, 상징분석을 위한 교육에서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사건들의 덩어리

로부터 질서를 찾아내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미리 주어진 길을 따라 이끌려가기보다, 그들 스스로의 방법으로 길을 찾는 데 사용될 도구들을 제공받으며, 초점은 실험기법에 놓여져야 한다(Nam, 1994, 251).

넷째, 창조적 전문가들은 대개 팀을 이루어 일하기 때문에 협동이 중요하다. 상징분석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설명회, 보고서, 디자인, 메모, 설계, 계획서 등을 통해 개념을 전달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소비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성취와 경쟁이 아닌 집단 학습이 강조된다. 학생들은 또박또박 발음하고, 설명하고, 정답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서로에게 다시 설명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들은 동료들에게서 비평을 구하고 그 비평을 수용하며,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방법을 배운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를 배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아내며,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법을 배우게 된다(Nam, 1994, 252-253). 이에 대하여 리요타르는 팀 작업에 대한 강조는 지식의 수행성 기준이 우세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진리를 말하거나 정의를 규정할 경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정의와 진리를 성공가능성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는 숫자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팀작업은 정해진 모형 속에서 수행성을 증대하는 데에, 특히 과제 수행에 성공적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이런 방향이 지식의 전수보다 지식 생산(연구 작업)과 더욱 관련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Yu, 1992, 135).

이처럼 지식의 상업화 경향에 따라 진리의 기준이 변화되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문자 등의 기호보다는 영상매체가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등장한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어떤 가치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어떤 기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시각적인 형체가 동원된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 체계나 교육 기관은 거의 예외없이 계통적인 구조에 대한 수용이나 전달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왔다. Eisner는 이에 대하여

시각적인 이미지가 완성되어서 값싸고 쉽게 얻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기관 등은 곧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한다(Lee, 1983, 136-137). 이와 함께 인터넷의 급속한 보편화는 재택 근무 뿐 아니라 재택 교육의 가능성을 훨씬 앞당기고 있으며, 이제 교육과 학교생활을 별개로 간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포스터(Poster)는 맑스(Marx)의 생산양식 개념으로는 탈현대 사회의 본질적 변화를 포착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최근의 사회 변화 양상을 정보양식의 출현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보양식 개념은 새로운 언어유형을 구성하는 전자적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관계를 지칭한다. 현재 선진 서구 사회의 주요한 새로운 차원은 언어에 관계되며, 언어적으로 기초한 개념에 의해서만 탐구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개념의 기본 가설이다. 그는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도입은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관계에 본질적인 변혁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의사소통의 형식은 구어 - 문어 - 전자언어로 변화되어 왔다. 전자 언어 단계는 그 전 단계와 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이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시공관계를 변모시키며, 메시지의 수신자-발신자 관계를 재조정하며, 언어의 코드를 변형시킨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체의 위상이 변화된다. 즉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계를 재구성한다(Kim, 1994, 302-305). 이러한 맥락에서 지리적 지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리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3. 정보양식 시대의 지리교육

최근 지역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학계 일각에서는 기존 이론들의 설명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어 왔다. 지역의 핵심을 영역화라는 프로세스(process)로 파악하고, 이를 주체 설정의 논리로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지역의 경제란 포섭과 배제의 사회적 과정이 작용하는 기제로서 파악하게 되었다. 이처럼 재현의 공간을 강조하는 입장은 기능 분화의 논리에 따른 공간 조직론과는 지향점이 확연히 다르며, 지역구분을 강조하는 전통적 지역지리나 경관론의 문제의식과도 전혀 다르다.

이 점에서 포스터가 제시한 정보양식 개념은 지역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개념틀을 제공해 준다. 필자는 여기서 전통 지역지리 패러다임의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스터의 논의에 생산양식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비탈 학파 전통에서 제시된 생활양식(genre de vie) 개념은 전산업사회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생활양식이란 지역마다의 고유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생업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조직되어 있는 양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의식과 규범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생활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인간과 환경 간의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인류 문명은 외부와는 비교적 단절된 채 지역마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왔다. 각 지역마다의 독특한 자연 환경에 적응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마다 고유한 생활양식을 전개하여 왔다. 농경 위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바로 궁극적 자원이었으며, 삶의 토대였다. 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이루어 온 생활양식이었다. 그러기에 지역 간에는 자연환경의 상이성 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지역이란 인간과 자연환경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총체적인 존재이며, 이러한 지역의 양상불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연 환경 속에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발전시켜 온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지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공학과 과학기술을 통하여 자연을 인류에게 유용한 형태로 변환하게 되었고, 근대적 교통 수단에 의하여 지역 간의 거리 마찰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대 민족국가의 출현

은 영토를 토대로 성립하였고, 영토에 대한 법적 지위는 지역을 인식하는 관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토 내에서의 법적 평등 적용은 동질 지역이라는 개념을 출현시켰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퇴색하고 있던 전통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생활양식론을 토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업화 사회의 지역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리에 기반한 문화권 개념은 민족 문화의 동질성과 그 영역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면서 지리교육에서 주요한 원리가 되었다. 즉 전통 지역지리 패러다임은 생활양식 시대에는 적합한 설명틀을 제공하였지만, 산업화와 생산양식 시대에는 설명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간 조직론과 공간분업론 등의 생산양식 시대의 지역인식 논리가 출현하게 되었다. 20세기 중엽부터 교통통신의 발달과 도시화 및 공업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능 지역과 상대적 위치의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지리 교육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개념의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으며,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지역 개념이 교육되어 왔다. 이제 정보 양식 시대의 새로운 지역 인식이라는 맥락에서 지리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세기말 국제은행가인 오브라이언(O'Brien)은 '지리의 종말'이라는 함축적인 표현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지리의 종말은 (국제 금융 관계에 적용된 개념일 경우) 지리적 위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까지 경제가 발전하리라는 것을 뜻한다. 즉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시장들이 통합되면서 물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Park, 1999, 49-50).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지리적 지식이 쓸모없게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²⁾ 이러한 견해는 이미 맑스가 시간에 의한 공간의 소멸로서 정식화하였으며, 1960년대 맥루언(McLuhan)이 이미 지구촌이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그렇지만, 이 때 중요성을 상실하는 것은 절대적 위치와 지방색의 특정한 측면일 뿐이다. 오브라이언도 특정한 경제 활동들은 여전히 비교적 제한된 물리적 영역 내에서 행해질 것이며, 거기에는 귀중한 전문기술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개인적 접촉이 필요한 거래에서는 거래자의 위치가 여전히

히 문제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Park, 1999, 49-50).

최근 가상 공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상대적 공간관이나 공간조직론마저도 사회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무력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포착하기 위하여 카스텔스(Castels)는 장소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 전환된다고 표현하였으며, 최근에 네트워크(network)로서의 공간이라는 개념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하비(Harvey)의 관계적 공간관 혹은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이라는 르페브르(Lefebvre)의 개념도 최근의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틀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의 지리교육은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증주의 이후 제기된 패러다임이나 연구 사조들을 정보양식이라는 관점에서 통합하여 제시할 시점이다. 논리의 비약을 무릅쓰고 간단히 종합하자면, 개인의 주관적 의미로서 구성되는 장소와 타인과 공유하는 경험으로서 파악되는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바로 지역을 형성하며, 인간이 지닌 영역성을 형성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육체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가해지는 물질적 제약조건이란 대부분 공간적 차원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따라서 공간이란 일상적 인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타인들과 공유하게 되는 경험이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공유 경험이 지역과 공동체의 토대가 되며, 바로 장소감과 장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들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자아가 확립되어 가는 데 있어 지리적 차원은 정체성의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아의 한 측면으로서 지리적 자아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가 있다. 즉, 장소, 지역, 공간은 개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행위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며, 결단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리적 자아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이 구성되어 지는 과정에 대한 성찰이며, 이를 지리적 자아의 사회화로서 폭넓게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교육학의 최근 동향과도 잘 부합된다. 현대 사회의 지식 변화에 비추어 학습의 본질은 정체성 형성이라는

견해가 새로운 교육학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Oh, 1990).

여기에 비추어 지리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탐색해야 한다. 이 점에서 최근 영국에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서 중심의 지리교육을 주창하는 입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거시적 수준에서는 거리가 소멸되고 장소가 상실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미시적 수준에서는 오히려 장소에 대한 지식이 더욱 필요하며 개인들의 공간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리교육에서 환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 행동을 지향한다면, 장소에 대한 애착감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환경, 장소에 대한 감수성이야말로 논리적 지식 이상으로 중요하기에 감수성을 길러주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Kim, 1998).

그러나 한국 사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고 개인들의 판단도 논리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현실에서는 정서와 지성의 균형을 지향하는 지리교육이 국민정서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교육학의 연구동향에 비추어 의미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리내용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국민정서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교육정책이란 대체로 국민정서에 기반을 두고 입안되며, 지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교육계나 국민정서 모두 지리교육은 지역지리라고 생각하고, 이는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상식적 수준의 정보 나열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국민정서에는 교육이란 추상적인 거대 담론을 통해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전통적 신념이 강하다. 즉 국토애를 통한 애국심 함양이라는 영토 교육의 입장은 아직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지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가 강하다. 아마도 개항 이후 세계지리를 통해 국제 비교의 안목을 배우면서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가 약소국이라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짐작된다.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근대화와 발

전'을 중심으로 비교지역의 시각에서 새로운 내용 개발이 시급하다.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지역지리 대신에 지리가 상식을 넘어선 학문적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지리만의 고유한 영역과 논리가 있다는 점을 교육학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교과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주제를 개발해야 한다.

이 점에서 환경이 독립된 교과로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리만의 고유한 가치관과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지리 교과 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는 방향이라고 본다. 즉, 환경지리를 과목 주제로 개발하기보다는 환경론으로서의 지리철학을 정립하는 방향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환경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지리적 개념들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 문명이 과학기술을 통하여 자연을 변환시켜 온 과정들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구 상에 존재하는 생명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우연성과 다양성을 가치로서 인정하는 지리 철학이야말로 교육이 지향하는 환경 윤리의 토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의 지리교육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 우선 역사지리를 중심으로 자연지리와 환경지리를 연결하여 '국토학'이라는 과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리교육의 목표로서 제시해야 할 국토상을 정립하는 일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탈현대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민족 통일이라는 근대적 과제가 놓여 있다. 민족의 생활 터전으로서의 국토에 대한 철학을 본격적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물리적 환경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조건으로서 우리 산과 우리 강, 우리 숲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거나, 국토개발의 대상으로서만 국토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의 형성 모태로서 국토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전통 지리 사상의 도입에 대한 부분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지리교육에서도 전통 지리 사상을 교육내용으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동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풍수 사상이 우리 사회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현대 지리학과 구별되는 전통지리사상의 독자성이 부족하다는 데에서 연유할 것이다. 최근 태백산맥과 백두대간을 둘러싼 쟁점을 보기만 하여도 실감할 수 있다. 산맥 명칭을 둘러싸고 쟁점이 전개되는 사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제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다. 국토를 문화적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전통지리사상과 풍수사상을 의미 부여를 통한 공간 및 장소의 자기화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부동산과 도시주택론, 지역개발론 등의 학문적 성과를 종합한 바탕 위에서 '토지정의론'을 교육내용으로서 개발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용적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윤리 및 가치관 교육의 차원을 결합시켜 우리의 독자적인 과목 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위의 제안이 지나치게 쟁점적인 견해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지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학의 연구를 일부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의 도시'라는 과목 주제로 다소 가치중립적인 교육내용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해외 지역 연구의 성과를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지형학의 시각과 종합하여 지역지리의 논리로 재구성하여 전통적인 세계지리의 내용을 '지역학'이라는 과목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이다.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단순히 거리를 극복한다는 수준의 인식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주체들이 새로운 영역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지역이란 경계가 교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문제의 국제초월적 성격,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의 강화, 초국적 기업의 중요성, 초국가주의와 다문화주의, 세계 도시와 세계금융망의 전개 등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란 궁극적으로 영역성이 형성되는 프로세스, 즉 영역화로서 교육해야 한다.

4. 결론

서구의 근대 지리교육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공교육 전통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71년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국민들에게 민족적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리 교과를 도입하였다(Hooson, 1994). 당시 독일 정부는 게르만 문화권이라는 등질 지역을 토대로 하여 영토 경계를 새로이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독일의 통일 과정이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였으며, 이러한 국가이념을 교육한 것이 바로 지리교육의 역할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보불전쟁의 패전으로 인한 영토 상실 이 지리교육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독일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영토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국토애를 통한 애국심 고취와 국익을 위한 국제정세 파악이 지리교육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전통에 근거하여 지리 교과는 공교육을 통하여 확고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지리교육의 목적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한다는 측면만 강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리교육에서 자아실현의 차원은 거의 잊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토애를 통한 애국심 함양이나 국익 중심의 국제정세 파악이라는 지역지리의 목표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리교육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처럼 지리교육은 시대정신의 교육적 요청에 따라 출현하였기에, 사회마다의 다양한 시공적 맥락 속에서 그 성격이 규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교과든 지 공교육의 모습은 교육사상의 영향, 정부의 요구, 모 학문(지리학)의 반영이라는 세 가지 힘의 역학구조 속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지리교육은 이 세 가지 세력 간의 간극이 너무 커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힘들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1945년 이후 지리교육의 국제 동향은 교육사상과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모학문의 영향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리학이 한국 지성사회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 지리교육은 교육계와 정부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지식의 성격 변화에 부응하여 장소와 정체성 교육, 청소년 문화를 배려한 정

서 중심의 지리교육, 환경론의 토대로서의 지리철학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정서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학, 주택정의론, 지역학 등의 과목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

- 1) 이 절은 Lee(2000, 149-157)에 수록된 필자의 글을 일부 재구성한 것임.
- 2) 지리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견해를 대중화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의 논의로는 Landes(1999)가 대표적이다.

참고 문헌

- Hooson, D., 1994, *Geography and National Identity*, Blackwell, Oxford.
- Kang, N. H., 2000, *The Problem of Korean Modernity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Science (Moonhwagwahak), Seoul, 22, 15-40 (in Korean).
- Kang, Y. A. (translation), 1994, *Culture in the Rapidly Changing Flow*, Sukwangsa, Seoul (강영안 역, 1994,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서광사, 서울; van Peursen, C. A., 1987, *Cultuur in stroomversnelling*, Martinus Nijhof, Leiden).
- Kim, S. G. (translation), 1994, *The Philosophy of New Media*, Mineumsa, Seoul (김성기 역, 1994,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서울; Poster, M., 1990, *The Mode of Information*, Polity Press, London).
- Kim, T. H., 1998, *Destruction and Creation of the Space - Between Sungnam and Bundang*, Moonhwagwahak, Seoul (김태현, 1998, 공간의 파괴와 생성 - 성남과 분당 사이, 문화과학사, 서울).
- Landes, D. S., 1999,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W.W. Norton & Company, New York
- Lee, H., M. (translation), 1983, *The Educational Imagination*, Konkuk University Press, Seoul (이해명 역, 1983, 교육적 상상력, 건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Eisner, E. W., 1979, *The Educational Imagination*, Macmillan, New York).
- Lee, M.-H., 2000, *Studies on Systematization of Objectives and Contents in Social Studies' Education I*,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이명희, 사회과 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연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 Nam, K. W. (translation), 1994, *The Work of Nation*, Kachi, Seoul (남경우 역, 1994, 국가의 일, 까치, 서울; Reich, R.B., 1991, *The Work of Nation*, Knopf, New York).
- Nam, S. J., 1999, *Exploring Geography Education*, Kyoyookgwahaksa, Seoul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 Oh, I. T. (translation), 1990, *Philosophical Anthropolgy of Education*, Mooneumsa, Seoul (오인택 외 역, 1990, 교육의 인문학, 문음사, 서울; Bollnow, O. F., 1971, *Pdagogik in antropologischer Sicht*, Tamagawa University Press, Tokyo).
- Park, H. J. and Kwon, K. D. (translation), 1998,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Hyundae mihaksa, Seoul (박형준·권기돈 역, 1998, 기호와 공간의 경제, 현대미학사, 서울; Lash, S. and Urry, J., 1994,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Sage Publications, London).
- Park, Y. C. (translation), 1999, *Money and Power*, Siyusi, Seoul (박영철 역, 1999, 화폐와 권력, 시유시, 서울; Cohen, B., 1998, *The Geography of Money*,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Sim, K. H., 2000, *Double tasks of Modernization/Postmodernization and New Perspective on the Social Movement*, Cultural Science (Moonhwagwahak), Seoul, 22, 41-81 (in Korean).
- Sung, B. Y. (translation), 1994, *Escape from the Social Science*, Changjakgwabipyongsa, Seoul (성백용 역, 1994,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창작과비평사, 서울; Wallerstein, I., 1991, *Unthinking Social Science*, B. Blackwell, Cambridge, MA).

권정화

Yu, J. W. (translation), 1992, *Postmodern Condition*, Mineumsa, Seoul (유정화 외 역, 1992,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서울; Lyotard, J. F., 1979, *La Condition postmoderne: repport sur le savoir*, Les Editions de Minuit, Paris).

교신: 권정화, 363-791,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kwondaam@knue.ac.kr, 전화: 043-230-3644)

Correspondence: Jung-Hwa kwo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2nd Colle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action, San Darakri Gangnaemyeon Cheongwongun Chungbuk, 363-791, Korea (e-mail: kwondaam@knue.ac.kr, phone: +82-43-230-3644)

최초투고일 2010. 12. 1

수정일 2010. 12. 20

최종접수일 2010. 12. 21